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32-40

찬양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1.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라고 고백 합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으십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우리는 육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영적 생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헬라어에서 ‘생명’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비오스(bios)로, 육체적이고 세사적인 삶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조에(zoe)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과의 교제와 화목 가운데 이 생명을 누리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며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빵만 있으면 된다,” “많이 가지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눅 12:15)고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음으로써 새 힘을 얻고 계십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